

2월말 1만명... 광주·전남 의료체계 한계 온다

코로나 오미크론 연일 4000명대 확진 '숨은 감염자'도 많을 듯
"이젠 누구나 감염 가능"... 공동체 지키는 성숙한 방역의식 절실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넘어지면서,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성숙한 방역의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대로 가면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감염 취약계층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일부에서 '첫 감염자 낙인' 등을 우려해 셀프검사를 꺼리는 등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행태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숨은 감염자'들이 곳곳에서 일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연일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한 감염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셀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3차 백신접종을 서두르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시점이

라고 조언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공공기관과 병원,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일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광주 2612명, 전남 1893명 등 4505명이 신규 확진 됐다. 지난 4일 2000명(2209명)대로 진입한 이후 10여일 만에 '더블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감염자 중 절반 이상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로, 지역사회 곳곳에 이들을 감염시킨 '숨은 감염자'들이 포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현 감염속도라면 광주·전남에서 이달 말께 하루 1만명대 확진자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진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이 31.4%로 안정적인 상

태이긴 하지만, 다음달이면 의료체계가 한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병원은 물론 광주 동구청, 무안군청 등 공공서비스 집단감염이 속출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등 사회필수 기능 마비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큰 걱정은 코로나19의 장기화·규모화에 따른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코로나19 갈등' 현상이다.

일부 직장 등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감염·유포자로 지목돼 '보이지 않는 비난'을 받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을 중심으로 '최초 감염자' 방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코로나19 갈등' 현상이다.

일부 직장 등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감염·유포자로 지목돼 '보이지 않는 비난'을 받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을 중심으로 '최초 감염자' 방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코로나19 갈등' 현상이다.

일부 직장 등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감염·유포자로 지목돼 '보이지 않는 비난'을 받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을 중심으로 '최초 감염자' 방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코로나19 갈등' 현상이다.

일부 직장 등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감염·유포자로 지목돼 '보이지 않는 비난'을 받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을 중심으로 '최초 감염자' 방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코로나19 갈등' 현상이다.

일부 직장 등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감염·유포자로 지목돼 '보이지 않는 비난'을 받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을 중심으로 '최초 감염자' 방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코로나19 갈등' 현상이다.

일부 직장 등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감염·유포자로 지목돼 '보이지 않는 비난'을 받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을 중심으로 '최초 감염자' 방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코로나19 갈등' 현상이다.

일부 직장 등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감염·유포자로 지목돼 '보이지 않는 비난'을 받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을 중심으로 '최초 감염자' 방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코로나19 갈등' 현상이다.

일부 직장 등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감염·유포자로 지목돼 '보이지 않는 비난'을 받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감염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나머지 조직원까지 감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먼저 검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첫 유포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제 검사를 꺼리는 현상도 있다"고 말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회적 갈등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회갈등 심화로 다수가 선제 셀프조사를 꺼리고 감염 사실마저 숨길 경우 심각한 집단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인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이제는 누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감염에 따른 집단 내 '낙인 효과' 등 사회적 갈등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미 셀프 검사시스템으로 전환된 만큼 조그마한 증세나 확진자 접촉 사례가 있으면 시민 스스로 적극적인 자가검사에 나서는 등 광주 공동체를 지키는 방역의식 확산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코메티·앤디 워홀 등 리움미술관 순회전

전남도립미술관서 개최

24일~5월29일 전시

자코메티, 데미안 허스트, 앤디 워홀...

지난해 10월 개막, '전일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리움미술관 재개관 기획전시가 전남에서 관람객을 만난다. <관련기사 16면>

리움미술관 순회전이 오는 24일부터 5월29일까지 광양에 자리한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에서 열린다. 지난 2004년 개관한 리움미술관이 자체 기획한 전시를 다른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회전 '인간, 일곱 개의 질문'전은 예술의 근원인 인간에 대해 7가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구성된 기획전으로 국내외 내로라하는 작가 40여 명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에서는 자코메티의 정물 조각 '거대한 여인 III', 앤디 워홀의 '마흔다섯 개의 금빛 마릴린'을 비롯해 부르조아, 데미안 허스트, 이브 클랭 등 해외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주명덕, 니키 S. 리, 최하늘 이블, 정연두, 이경운 등 해외에서 인정받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리움 미술관의 수준 높은 소장품과 국내외의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던 이번 전시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며, 폐막일까지 '전일 매진'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전남도립미술관은 앞서 이경희 컬렉션 가운데 김환기·천경자 등 21점의 작품을 기증받아 기획전 '고귀한 선물, 위대한 유산'전을 진행했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통령선거 후보 벽보 17일 오후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각 정당 대선 후보 측에서 제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이재명 오늘 광주·전남서 '호남 표심' 결집

민주당, 인원 총동원령

박빙 대선 분위기 바꾸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텃밭인 광주·전남을 찾아 본격적으로 호남 표심을 다진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 후보는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 옛 전남도청 등지와 순천과 목포, 나

주 등 전남지역을 순회하는 강행군을 통해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 표심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 민주당도 이 행사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18일 순천을 시작으로 목포와 나주를 거쳐 오후에는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인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과 만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순천 연향동 연향패 선거리를 먼저 찾아 전조연설과 퍼포먼스를 한다.

또 낮 12시 목포 평화광장에서 전조연설 등을 하며 지역민과 만난 뒤 오후 3시 장소를 나주 금성관으로 옮겨 거리 연설 등을 진행한다. 이어 이 후보는 광주에서 지역 공약 전달식과 한국 정치사에서 호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이번 대선의 중요함 등을

상징하는 '정치 퍼포먼스'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후보의 이날 일정은 전남 동부에서 서부를 가로지르고, 전남 중부를 거치는 강행군을 통해 많은 지역민들과 접촉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구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동원령을 내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를 결집하고, '박빙 대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통해 '이재명 지지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북스 - '외식의 역사' '인간의 악에게...' ▶14·15면

최민정 "이번 금메달이 가장 값져요" ▶18면

신 호남 의병 이야기 - 금재 이기손 ▶22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아이오페 SUPER CLUB

아이오페 베스트 상품 구매하면 슈퍼클럽 자동 가입!

아이오페 슈퍼클럽 가입 방법

아이오페/한울 베스트 상품을 아리따움 매장, 마트 화장품 매장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구매시 자동 가입됩니다.

IOPE 레티놀 엑스퍼트 0.1%, 0.2%, 0.3% (MINI 제외)
바이오 컨디셔닝 에센스 쓰리 펙티드
슈퍼바이탈 에센스 크림 리치

한울 극진 에센스 기획세트
극진 크림 기획세트

※ 슈퍼클럽 회원 유지 기간은 구매일 포함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기간 내 재구매 시, 구매 당일 포함 3개월까지 회원 유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아이오페 슈퍼클럽 혜택

01 아이오페 전 품목 (MINI 제외)
한울 일부 품목 [극진, 백화고, 세살썩 라인]
바이탈뷰티 일부 품목 [슈퍼클린 프리미엄, 홍삼 진액수]
10% 추가 할인

02 레티놀 구매 시 (MINI 제외)
5천원 슈퍼쿠폰 증정
[레티놀 및 쿠폰 제외 상품 적용 불가]

※ 슈퍼클럽 10% 추가 할인은 타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됩니다.
※ 슈퍼클럽 10% 추가 할인은 주문/결제 단계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 슈퍼쿠폰은 주문/결제단계에서 쿠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슈퍼쿠폰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레티놀 엑스퍼트 0.1% MINI는 아이오페 슈퍼클럽 혜택에서 제외되며, 1인당 하루 최대 5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 환불 시 슈퍼클럽 등급은 종료되며 지급된 혜택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